

메타버스 얼라이언스 윤리제도분과 제2차 회의결과

(2025. 07. 18. 메타버스 얼라이언스)

□ 개요

- (목적) 메타버스 자율규제 현안 논의 및 현장 의견 수렴
- (일시/장소) '25. 7. 10(목), 15:00~17:00/K-META 4층 회의실

□ 주요 안건

- 메타버스 자율규제 운영 현황 공유 및 현장 의견 수렴
- 자율규제 산업계 동향 파악 및 메타버스 플랫폼 우수사례 공유

□ 참석자 산·학·연·관 전문가 25명(분과원 및 간사 21명/개방형 참여 4명)

구분	소속	성명	직급	비고
분과원	학계	법무법인 비트	송도영	변호사
		법무법인 세종	이종관	수석전문위원
		창원대학교	김태오	교수
	산업계	더픽트	전창대	대표
		글로벌포인트	조상용	대표
		브이리스브이알	권종수	대표
	연구계	저작권 위원회	김찬동	팀장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강신각	책임연구원
산업계	디캐릭	이명찬	대리	발제자
		김태석	부사장	
		김지혜	차장	
	새만금개발청	신영선	사무관	
		두순영	주무관	
유관기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이종석	팀장	
	메타버스 자율규제위원회	김정수	사무국장	
		남지현	대리	온라인
사무국	K-META 정책기획실	서영석	실장	
		이명진	부장	
		주정현	차장	
		이혜민	과장	
개방형 (온라인)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이예림	연구원	
	메타크루	주홍재	대표	
	엠버스703	노치욱	대표	
	테크빌교육	박기현	부사장	

□ 주요 내용

○ 메타버스 자율규제 운영 현황(메타버스자율규제위원회 김정수 사무국장)

구분	주요 내용
메타버스 산업 성장과 규제 필요성	- 메타버스 산업의 급격한 성장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문제와 위험도 함께 대두됨 - 새로운 규제이슈에 대해 유연하고 혁신적인 대응을 위해 민간 중심의 자율규제 체계 필요
추진 구조	- 전문성과 독립성이 확보된 자율규제위원회를 출범하고 위원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분과위원회 구성·운영 -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사무국 설치
이행 수단 (가이드라인)	-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 명예훼손, 디지털 성범죄 등 예방 - 지식재산권 보호 가이드라인: 저작권 및 이용범위 명시 - 메타버스확인 가이드라인 : 메타버스 서비스 구분 - 거래 분야 가이드라인 : 메타버스내 거래 준수사항 규정 - 분쟁조정분과를 활용한 메타버스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분쟁 해결 지원
추진 방향	- 산업계의 책임과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약속이자 문화' - 성공적 정착을 위해 산업계 참여, 정부 지원, 시민단체 공감대 필요 - 자율규제 활성화를 위해 준수사항 모니터링 및 우수 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 필요
기대효과	- 신산업 규율공백을 해소하고 새로운 규제이슈에 적시 대응 - 자발적 자율규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로드맵 설립·이행

○ 메타버스 규제개선 과제의 유형과 자율규제 설계방식에 따른 산업계 수용성과 실행 가능성에 관한 질적연구(글로벌포인트 조상용 대표)

구분	주요 내용
자율규제 유형 및 진흥법 검토	- 메타버스 자율규제 유형에 대한 세부 기준 부족 - 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규제 설계 필요 - 2023년 3월 '선제적 규제 혁신 방안' 발표 이후 후속 연구 필요
규제 수용성 및 실행성	- 자율 규제의 현장 적용성, 수용성, 실행 가능성 분석 필요 - 규제는 단순한 일괄(안)이 아닌, 복잡한 연계 구조의 설계 필요

연구 구조: 범 분야 vs 특정 분야	- 과제 유형을 범 분야 공통 과제(예: 개인정보, 생태계 등)와 특정 분야 과제(산업별 특화 사안)로 구분해 연구
방법 및 사례 분석	- 기존 연구는 제한적 → 30개 정책 과제 기반으로 심층 분석 - 4개 자율규제* 모델 사례(자율보안, 임시기준제도 등) 중심으로 실효성 모델화 시도 ※ *자율 규제 설계 방식과 과제 유형의 조합에 따라 수용성 및 실행성이 달라지며, 이를 바탕으로 4가지 가설 모델을 설정함
규제 혁신 방안 제안	- 정책 기반 실과제 분석을 통해 30개 규제 혁신(안) 도출 - 향후 AI 진흥법 등 타 분야와 연계성 고려한 정책 설계 필요
자율 규제 형태별 적용성 평가	- 실제 산업 현장에서 수용성과 실행성 높은 과제는 성공 가능성이 높음 - NFT, VR/AR 관련 과제는 불확실성 및 기술 미비로 수용성 낮음
제언	- 자율규제는 단순 선언이 아닌 맞춤형 설계 기반의 정교한 접근이 필수 - 산업계, 정부, 시민사회 3자 협업을 통한 실질적 적용 모델 확립 필요

○ 메타버스 플랫폼 민간부문 우수사례(글로브포인트 조상용 대표)

구분	주요 내용
메타트리 플랫폼 구조	- 기존 로블록스와 유사한 단품 솔루션 판매에서 벗어나 B2C, B2B, B2G 대응이 가능한 SaaS형 플랫폼 '메타트리' 설계·운영 - 다양한 유저 기반의 서비스 시나리오 고민 및 사례 공유
메타웍스 서비스 모델	- 13년간 개발한 콘텐츠를 구독형 메타버스 플랫폼에 통합하여, 학생의 수업/포트폴리오 생성/전시 가능한 구조로 설계함 - 1년·2년·6개월 단위 구독 모델, 공간 활용 중심 발표 시스템 도입
AI 스토리빌더 및 저작권 이슈	- 동화책 생성 플랫폼에 AI 연동 - 자동 콘텐츠 검색·생성 기능 탑재 - 생성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허용 범위 명확화 필요성 강조 - 캐릭터 디자인은 포트폴리오 전시와 공유를 전제로 개발 - 25개국에서 PoC 진행 중 - 국내외 정책 이슈를 구분해 대응할 필요 인식
자율 규제 유형별 적용성과	- 자율 규제 유형 4가지에 과제 매칭 실험 - 수용성과 실행 가능성이 높은 유형이 실효성 있음 - 가장 효과적 모델: 정부 주도 → 협회 위임 → 법적 장치 연계 모델

B2C 유저 수익화와 규제 필요성	- 개인 창작자가 콘텐츠 재가공 후 수익화하는 사례 다수 발생 - 이에 따른 저작권, 수익 분배 문제 대응 필요 - 향후 플랫폼 오픈 시점에 관련 규정 포함 예정
-----------------------	--

○ 메타버스 플랫폼 민간부문 우수사례(디캐릭 이명찬 대리)

구분	주요 내용
버추얼 새만금 개요 및 운영 구조	- 새만금개발청 주관의 글로벌 플랫폼(Engage VR)을 활용함 - 세 가지 콘텐츠 공간 운영 및 웹 기반 홈페이지·미리보기 앱 제공
콘텐츠 구성 및 활용 목적	- 관광·산업·미래 혼합 테마 구성 - 산업단지 컨벤션 기능 포함 - 공간 설계에 대한 민감한 반응 존재 (도면 유출 우려 등)
공공 메타버스 운영 현실	- 이벤트 비중 높고 지속적 이용 저조 - 피드백 기반 개선 필요 - 사적 기능/저작권 방침 적용 어려워 자체 플랫폼 개발 중
향후 방향 및 제언	- 교육용 콘텐츠 강화, 킬링 콘텐츠 혼합 - HMD 기반보다 웹3D 기반 범용 플랫폼 필요 - 콘텐츠 구분: VR/AR/웹 혼합보다 목적별 명확한 분리 필요

□ 향후 일정

○ 윤리제도분과 3차 회의

- 주제: 메타버스 임시기준 및 윤리제도 관련 예정